십자가복음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코드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태승철의 오늘의 번제 <하나님이 무서울 때와 좋을 때>의 줄거리 :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자욱한 연기를 동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이 선민들의 믿음을 강화하시려고 제출하신 시험이라고 하십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출하신 시험지를 받아보고서 두려워한 셈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본능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이 시험의 통과 여부에 따라서, 같은 선민이라도 하나님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무서워하든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울 때와 좋을 때

(출애굽기 20:18~21)

18.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21.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온 산이 진동할 나팔 소리와 자욱한 연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20절을 보면 "…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신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좋음이십니다. 인간은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마음이 하나님의

좋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좋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가까이 다가온다면 무서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가짜 좋음이라도 일단 좋음이라고 확신한다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무서워하는 경우는 극도로 싫어할 때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10억을 벌 기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좋아하는 사람이 건강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서워하고 죽을까 두려워하며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상황은 사뭇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했던 이유는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한 좋음이고 참 좋음임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배 부르자, 하나님을 벌자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좋음을 느낄 수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좋음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에 답을 줍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좋음을 믿기만 해도 기독교 종교인들에 비하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대로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일상성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현상들을 동반하시면서 선민에게 임재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이러한 현상들은 선민에게 제출하신 시험의 합격선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일상적인 파격적 현상들을 통해 선민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신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 것으로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우레와 번개와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누구나 시선을 빼앗길 수밖

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중대한 일에 마음을 쏟고 있었더라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초일상적이고 파격적인 광경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선민의 상황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선민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의 사실을 의식하는 강도가 그만큼 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불길과 연기가 자욱한 현상 속에 휩싸인다면 아무리 지대한 관심사가 있더라도 그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선민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강하게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의식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의식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심각한 재정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고막이 찢어져라 우레와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른다면 아무리 심각한 재정 문제가 있더라도 관심을 기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일상적이고 파격적인 현상들을 동반하면서 임재하신 이유는 시험의 기준을 제시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에 신경을 빼앗기듯이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합격할 때 비로소 하나님 경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이 아까워서 잠시라도 내 마음에서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내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의 좋음에 눈을 떴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가 나를 감싸는 상황에서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시험의 합격 기준입니다. 그럴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과 유일한 좋음과 주권자 되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좋음으로만 마음이 채워질 수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저런 일들에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준선에서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에 휩싸일 때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어마어마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일들을 더 크게 보며 관심과 신경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좋음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시험이 너무 어렵고 빡빡한 것이 아닌가? 과연 누가 통과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큰일이 터지면 다른 자잘한 일들에는 신경도 쓸 수 없게 되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이 이와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과 주권자 되심을 의식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나 관심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론으로만 '창조주 하나님은 크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유일한 좋음이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티끌 같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의식에서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밀어낼 정도로 큰일이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시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자면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내 신경과 의식을 빼앗아 갈 만큼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설령 지구가 반으로 쪼개져서 두 덩이가 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보다 먼저 의식할 일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땅에 뒹굴면서 크게 느끼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일을 크게 여기는 이유는 마음을 한없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처럼 대단한 가치를 지닌 것은 세상에 달리 없습니다. 그 값진 마음을 아무것도 아닌 일에 투자하기에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까이 계시며 나와 관계를 맺으시려는 임재하심의 순간에 초일상적 현상을 동반하시며 시험의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쉽게 말해 '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때 너희의 의식이 다른 곳을 향할 수 없듯이, 너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나를 의식하라. 어떤 일에도 너희의 의식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셈입니다.

한편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신경과 의식을 집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에 마음을 빼앗기듯이 하나님만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그동안 좋아하고 아까워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신경과 의식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신경과 의식과 관심을 다 빼앗아 가시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무섭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여 관계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의식에서 던져버리고 관심에서 제쳐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의식하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버려야만 하기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시험의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 마음의 관심을 빼앗아 갔던 것들, 내 신경을 쓰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죽은 자처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이 제시하신 시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초일상적이고 파격적인 현상들에 마음을 빼앗기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써야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좋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모세는 20절에서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합니다. 풀어보자면 '너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좋음의 맛에 눈을 뜨게 된다. 의식에서 하나님을 잠시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가 되어야 말과 행동에서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독대하여 선민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모세가 인격적으로 독대하는 장면이 왜 흑암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과의 독대는 광명함 속에서 일어

나야 할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이 흑암이 뜻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흑암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흑암은 구름이 너무 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초일상적인 파격적 현상들에 의식을 빼앗기듯이 하나님께 의식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만을 신경 쓰는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했다는 것은 모세의 의식 속에서 이 세상이 완전히 흑암에 묻혀버린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만 신경 쓰고 의식을 집중하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은 모세의 의식에서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라는 현상에 휩싸일 때 의식을 빼앗기듯이 하나님께 의식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세상에 대해서는 흑암이 됩니다. 하나님께 의식을 집중하느라 세상일들에 대해서는 흑암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일들에 대해 밝히 봄이 없고, 의식을 빼앗기지 않고,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광명한 가운데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흑암 속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음에서 하나님만이 밝게 보이고 있었고 세상은 흑암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서 세상이 밝게 보이고 하나님이 흑암 속에 묻혀 계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 같은 세상일들을 마음에서 밝히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흑암 속으로 밀어 넣는 행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의식과 신경이 닿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종교가 만들어 낸 껍데기뿐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밝히 보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유는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면에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의식은 하나님께 집중되고, 세상은 흑암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의식에서 흑암으로 들어간 삶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보며 광명함 속에 있게 되고, 내 의식에서 흑암에 들어간 세상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광명함 속에 있게 됩니

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세상을 밝히 보느라 하나님을 흑암 속에 몰아넣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끌어가실 모든 계획 또한 흑암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 때 동반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초일상적이고 파격적인 현상들이 나를 휩싸서 의식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의식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신경 쓰겠다는 결심입니다.

내 의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가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초일상적이고 파격적인 현상들과 같은 효과를 내 마음에서 일으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의 의식과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이면서 동시에 흑암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45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라고 했습니다. 흑암이 임하는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사라져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흑암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긴 이유는 흑암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의식과 신경이 계속해서 세상 것들을 밝히 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휘장처럼 세상이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의식과 신경에 흑암을 가져옵니다. 그 흑암 속에서 세상에 대한 신경이 죽고 의식이 꺼집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는 3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좋음이십니다. 그 좋음을 느끼려면 우리 마음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껍데기뿐인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의

식하고 신경 쓰고 붙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만들어 낸 신을 하나님으로 대치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서워할 대상도 아니고 좋아할 대상도 아닙니다. 종교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이 세상 것을 얻는 데 도움을 주면 될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실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좋아하고 싶기에 시험을 통과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을 놔야만 대면하여 관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과 신경을 하나님께만 다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서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을 향하는 모든 신경과 의식을 끊고, 내 몸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내 의식의 흑암 속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만을 직면하고 신경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식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의식에서 흑암 속에 들어간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빛이시고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임하므로 내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광명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고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광명한 세상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흑암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내 의식과 신경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를 동반하신 이유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신경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께 모든 신경을 다 쓸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 문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흑암 속으로 밀어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초일상적이고 파격적인 현상을 모세는 시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좋음을 느낄 수 있으려면 통과해야 할 기준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 종교인들은 실제 하나님과 관계할 생각이 없기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대상으로써 실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세상 것을 놔야만 대면하여 관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선을 통과하여 시험에 합격하면 진정한 하나님 경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한 순간도 의식에서 하나님을 놓치기 싫어서 발버둥 칠 정도로 하나님 좋음의 맛에 눈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내 의식과 신경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내 의식 안에서 흑암 속으로 밀어 넣게 하시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치솟는 불길과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을 때처럼 하나님께만 우리의 의식이 집중됨으로써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좋음으로 배 터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